

修信使가 본 近代日本風俗*

- 김기수의 일본풍속인식을 중심으로 -

The late 19th century Japanese folk culture which Korean Embassy experienced

- Focused on Japanese folk culture recognition of Ki-Su Kim(金綺秀) -

전성희 · 박춘순**

奈良女子大學 ·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Seong-Hee Jeon · Chun-Sun park**

Nara Univ ·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late nineteenth-century Korean intellectuals' understanding of Japanese customs on the basis of Ki-Su Kim(金綺秀)'s records. Ki-Su Kim was conservative on his inspection and observation trip to Japan. Even though he was loyal to Chinese philosophy, he expressed his great interest when he was reluctant to see the Western technology flowered in Japan because it is not mentioned in Confucianism(朱子學).

However, he, like modern scholars in the later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took an objective view of the military matters, such as the military training of soldiers, weapons, and others. On the one hand, he appreciated the western garment in that it, fitting the human body perfectly, makes people comfortable.

In the later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the Koreans had a sense of their superiority to the Japanese and held them in contempt, which had been rooted in the Japanese invasion of Chosun in the year of Imjin(AD 1592). Even around AD 1870, the Koreans regarded the Japanese as a barbarian or a savage, even though the Japanese had attempted to modernize their country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Western civilization since the renovation of Meiji(明治).

Key Words : the Western civilization, Korean Embassy, Confucianism, a positive school

I. 서론

1876년 개국 후 조선정부는 전부 네 차례에 걸쳐 공식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즉 1876년 2월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그 해 5월에 제1차 수신사, 이어서 1880년에 제2차 수신사, 1881년에 신사유람단, 1882년에 제3차 수신사를 파견하였다.

이러한 일본파견 조선사절단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정치·외교사의 관점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1972)의 연구로 방대한 사료에 근거하여 근대 한일관계사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되는, 제1차 수신사에 관해서 수신사

파견의 경위, 파견일정, 사절단의 구성, 일본에서의 견학 및 시찰의 내용 등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해방 후 한국의 역사학자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1970년대 초반까지 다수의 한국 역사가들은 근대 한일관계사 연구자들에 있어서 이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방 전의 일본인 한국사 연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식민지사관이 있으며, 때때로 한국 측의 입장을 무시하는 서술도 하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되는 선행연구인 趙恒來(1994)의 연구는 제1차 수신사행에 관해 고찰한 김기수의 『日東記遊』를 중심으로 수신사의 사명과 사절파견의 과정, 김기수의 대일인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金允植(1974)의 연구는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日東記遊』를 검토한 것인데, 수신

* 본 논문은 1996년도 전성희의 한국학술재단 박사 후 연구비에 의해 작성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chun-sun Park
Tel: 042) 821-6824, Fax: 042) 822-8283
E-mail: cspark@cnu.ac.kr

사행에 있어서 조선보다 한발 앞서 근대화를 시작한 당시의 일본을 목격한 김기수의 복잡한 심경을 '심상(心象)'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고찰하였다.

최근의 연구동향으로서, 제1차 수신사행을 비교문화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鄭應洙(1991)의 연구가 있다. 서양문명에 대한 한일 인식의 차이를 검토하여, 한국의 제1차 수신사와 일본 근세말기 막부 말기의 견미(遣美)사절단을 비교하였다. 이 양 사절단은 비록 시기적으로는 16년 정도 차이가 있지만, 서양문명을 처음으로 접하는 최초의 사절단으로서 유사점이 많다. 특히 鄭應洙는 사절단의 서양문명에 대한 인식태도에 주목하여 한일양국의 상이를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한일양국에 있어서 최초의 해외외견 공식사절의 근대문명 인식이라는 문제를 검토한 선구적인 연구라고 생각된다.

鄭應洙의 연구는 연구사적으로 볼 때 매우 의의가 있지만, 분석대상이 양적으로 미흡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 또한 훌륭한 발상과 적합한 사료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비교가 불충분하다.

19세기 후반 조선은 사상적으로 일본에 대해 개화를 지지하는 그룹과 개화를 반대하는 두 그룹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시점에서 강화도 조약(1896년)과 제 1차 수신사행은 '반개화'에서 '개화'로 근대화되는 사건으로, 한국사에 있어서 의미가 깊다. 수신사일행의 일본인식은 개화와 반개화의 공존선상에서 갈등하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밝힌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 개화와 반개화의 공존과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제 1차 수신사행 사절단의 대표적인 정사 김기수의 기록 『日東記遊』와 『修信使日記』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기본사상인 화이관(華夷觀)을 살펴보고, 개화되는 변화과정의 일면을 고찰하여, 19세기 후반 조선지식인의 일본인식, 특히 일본풍속인식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김기수는 당시 조선의 대표적인 지식인이라 할 수 있으며, 그의 기록은 당시의 조선 지식인의 일본인식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II. 조선시대 대외인식의 기본구조

19세기 후반 조선의 대일인식을 고찰하기 위해서, 대외인식의 바탕이 되는 사상적 배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조선시대는 주자학을 바탕으로 하는 유교가 그 통치 이념이었다. 조선전기에 주자학은 정치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조선후기에는 주자학

이 목적 자체가 되어버린다.

조선시대 대외인식의 기본은 주자학적 '화이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바로 '존화양이(尊華攘夷)'의 원칙에 입각한 이념이다. 화이의 일반적 성격은 고대 중국의 중화사상에 근원을 둔다. 화이사상의 유래는 본래 한민족의 세계관으로서, 예의 유무에 따라 세계를 화(華)와 이(夷)로 구별하여, 자국인 중국은 예가 갖추어진 나라 즉 중화의 나라임으로, 중국 이외의 다른 모든 나라를 이적(夷狄)으로 인식하는 개념이다.

한(漢)민족은 황하유역을 중심으로 일찍이 농경문화가 발달하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것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주변 이민족보다 자국이 우위에 있다는 의미에서 '중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왔다.

그 후 춘추전국시대에 약육강식의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자, 공자에 의한 '예'의 질서규범이 성립되면서,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조공과 책봉의 예'라는 외교관례가 생겼다. 반면 이러한 관계에 있지 않은 이민족은 '금수'로 간주되고, 종래의 중화관념은 예를 전제로, 유교적 '예문화'의 우열에 의한 상하관계로서 국제관계를 규정하였다.

송대 주자학이 성립하여 우주의 생성으로부터 인간성에 이르는 모든 문제에 대해 형이상학적 도론을 바탕으로 도덕성과 윤리성이 부여되면서, 종래의 예관념에 의한 국제간의 질서도 도리에 근거한 불변의 절대원칙이 규범화되었다.

1. 조선전기의 '對明事大'

조선시대 전기, 주자학적 세계관의 형성과 함께 관념적 '화이관'이 정착하게 되고, 이러한 정치사상이 대외정책화 될 때 '사대교린'의 모습이 나타났다. 절대불변의 천리·도리인 주자학의 이념은 조선의 대외관계를 규범화하는 가치관 즉 '화이관'으로 문화주의의 화이관념과 '예'를 기본으로 하는 규범적 질서를 전제로 외부세계를 인식한다. 그래서 중화문명 또는 그와 동질성을 갖지 않은 나라를 배격하고, 조선과 명나라의 문명만을 동류로 하고 다른 것은 전부 이적시하였다.

조선초기 중국에 대한 인식 및 대외정책의 기본은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대외인식의 기본시좌인 전통주의적, 규범 주의적 화이관에 바탕을 두면서, 문화적 가치인식에 있어서는 중국과 동질문화·동일수준이라는 문화적 자존의식에 의한 주체성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군사적 열세를 보완하고 자국의 생존권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수단을

로서 조공과 책봉에 의한 사대라고 하는 외교노선을 취한 것이다. 이는 형식에 있어서 불평등하지만, 국가의 주권에 모순되지 않는 현실적, 상황주의적 외교라고도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문화주의의 화이관념 즉 문화적 자존의식이란, 명의 문화가치는 조선의 문화가치와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평화지향적·도덕지향적·비침략적 문화이기 때문에, 조선은 명과 동질문화권에 있는 동일수준의 문화라는 것이다.

孫承喆(1987)은 조선전기 대명 외교의 이중구조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군사적 열세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문화적·정치적 요소가 결부되어 있다. 조선은 명과 군신관계를 맺어서 명의 제후국이 되어, 조선왕은 명나라 천자의 승인에 의해 그 정권을 합법화하며, 명에는 정기적으로 조공을 한다. 조공은 자율성의 규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의례적인 것으로서, 국력과 군사적인 면에서 대소·강약의 차가 있기 때문에 상하의 질서를 설정해서 평화적 공존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대명 외교의 이중구조이다. 다시 말해서, 사대란 타율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고, 자국의 생존을 유지·강화시키기 위한 정치·군사적 의미를 가진 현실주의적 대외인식인 것이다.

이 같은 사대외교의 현실적 이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정권의 합법화에 의한 정치적 안정과, 조공과 동시에 대대적인 무역이 이루어져 그 결과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중 구조적 외교는 대일관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의 대일교린 외교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일본에 대한 우위성, 일본과의 평화관계 유지 등, 명분과 현실의 양면에 의해 추진되었다. 대일교린 외교의 이중구조에는 문화민족이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저변에 깔려 있어, 이 같은 문화적 선진국이라는 자부는 '왜인'·'야만인'이라는 말을 낳고, 일본에 대한 불신감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조선전기의 대일 인식에는 중국 중심의 화이관이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이다.

2. 조선 후기 대외인식의 주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조선조 정치이념으로서의 주자학은 조선 후기에 유교적 정치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 목적이 되었다. 유교의 본가인 중국보다 더 유교적 규범에 집착하게 된 것이다. 즉 정치의 사상이 주자학적 예인 대명사대, 그 자체를 지향하는 명분론적 성격을 띠게 되고 이러한 경향은 임진왜란 이후, 더욱 심화되어 갔다.

조선 후기의 대외인식은 이른바 '조선형 화이관'에 근거

한 문화적 우월 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조선형 화이관' 즉 소중화(小中華)의 사상적 계보는 노론계 유학자 우암 宋時烈(1607-89)에서 비롯된다. '소중화'의식은 단적으로 반금적(反金的) 존화양이사상으로서 청을 이적시하는 관념이다.

그 논리적 구조를 보면, 조선전기에는 조선에 있어서 명은 '대중화'이며, '이소사대'의 사대관계에 있었지만, 여진족인 청(1616-1912)이 한족인 명(1368-1644)을 멸망시키고 1627년과 36년에 조선을 침입하자, 정치적으로는 청과 사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선을 유일한 소중화로 인식하였다. 즉 조선은 명을 '대중화'로서 형식적으로 복속했었으나, 1644년에 명이 청에 멸망하자 삼강오륜의 예가 행해지고 있는 곳은 바로 주자학을 정학으로 하는 조선인 자국뿐이라는 것이다.

명의 멸망 후, 조선을 중화문명의 유일한 계승자라고 하는 이 '소중화'사상은 조선 후기 대외관계에 있어서 실천 원칙이 되었으며, 이러한 자기만족적인 고립주의가 청이나 일본에 대해서 현실적 대응력을 후퇴시켰다.

III. 전근대의 일본관

1. 임진왜란 이전의 일본관

조선시대 일본관에 관해서는 이미 三宅英利(1993), 河宇鳳(1989)이 그 특징을 논한 바 있다. 申叔舟(1417-75)는 1443년 아시카가 요시노리(足利) 정권시 통신사의 서상관(書狀官)으로 도일하였고, 후일 영의정이 되었으며, 15세기 대일외교의 최고 책임자였다. 그는 저서 『海東諸國紀』(1471)를 통해 당시의 일본, 특히 관서지방과 현재의 오키나와인 유구지방의 지리·풍속 등을 상세히 전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후세 조선인의 일본인식에 오랫동안 영향을 끼쳤다.

신숙주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유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풍속이 서로 다르므로 일본의 실정을 잘 알고 철저히 교린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일관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여무역'과 예의로서 융숭히 접대하고, 한일교린의 기본은 '예'를 지키는 데 있다고 하였다.

일본의 풍속에 대해서는 이국의 풍속으로서 담담하게 소개하면서 이적시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을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로, 일본의 국민성에 대해서 '습성이 거칠다', '무술에 정련'하며, '배의 노 젓는 기술'에 숙달되어 있다고 하여, 일본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2. 임진왜란 이후의 일본관(17세기)

1) 李暉光(1563-1628)

임란이후 17세기 조선조는 임진왜란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생존해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대일 적대감과 반일감정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이다. 이수광은 그의 저서 『芝峯類說』(1614) 중 일본에 관한 기술에서, 일본인을 '왜노(倭奴)', '이류(異類)' 등으로 불러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축성기술과 무기를 높이 평가하고 그것의 수용을 주장하였다.

2) 姜沆(1567-1618)

퇴계 이황 계열의 유학자로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두 번째 조선 침략 시, 1597년에 전라도에서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 일본 관서지방으로 끌려갔다. 그 후 조선에 송환되기까지 수년간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의 유학자와 교류를 하였는데 특히 일본에 조선의 주자학을 전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적중견문록」(강항, 1987)에서 일본의 풍속을 정확히 관찰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기술을 중시하는 일본인의 관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명예롭게 죽은 자의 자손을 우대하는 것은 전쟁 시에 용기를 주는 힘이라고 하였다.

3. 실학파의 일본관(18세기)

조선의 실학은 17세기후반부터 19세기초반에 걸쳐 행해진 학풍으로서, 특히 18세기 영조(재위1724-1776)와 정조(재위1776-1800)기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실학은 일종의 개신유교로서 18세기 후반 이후 실학파에 대한 일본 인식은 근대 지향적 대외인식의 바탕이 되었다.

실학의 발생에는 조선조의 '주자학일존주의'라는 사상적 배경이 있다. 실학은 조선 후기 '숭명배척'의 소중화사상이 정착하면서, 조선 주자학이 허학화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명분론에 집착함을 비판하였다. 실학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율곡의 '경세사상'을 계승한 것으로, 중국 중심의 화이사상을 부정하였으며, 서양의 과학적 사고방식에 근거한 비판정신을 지니고 있다.

실학자의 개방적인 세계관과 박학성, 왕성한 학문적 호기심은 1870년대 전후의 개화사상의 내재적 전제가 되었다. 실학파의 일본인식의 정보원은 조선통신사의 기록, 통신사 수행원들로부터 들은 전문, 통신사를 통해 전해진 일본서적 등이다.

1) 李瀾(1681-1763)

성호 이익은 유학자들의 '숭명배척'의 고정관념을 비판하고, '청조 긍정론'을 주장하였다. 사대의 기본목적은 국가의 보전에 있으며, 조선의 몰락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명분론적 국제인식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서 『星湖僿說』(18세기중엽)은 일본에 관해 기술하였는데, 임란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에 대해, 하층계급 출신으로 최고 지위까지 오른 그의 노력과 인간적인 장점을 칭찬하였다. 일본실정에 관해, 물산이 풍부하며, 기술이 우수하며, 국력이 강성하다고 하였다. 또한 인쇄문화 등의 일본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일본유학자의 충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평화를 위하여 교린체제의 유지를 강조하고, 국권보전의 길은 교린정신의 본질에 충실함에 있다고 하였다. 상호평등에 입각한 외교의례의 회복을 위해서, 귀화일본인에 대한 조선정부의 차별정책을 비판하고 조선통신사의 불평등을 지적하였다.

당시 조선통신사는 일본 에도(江戶)까지 갔지만, 임란 후 조선에서는 대일 불신감으로 인해 일본사절은 부산의 왜관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는 한일 간의 이러한 불평등을 지적하고, 평등에 입각한 외교 의례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3년마다 일본과 통신사를 상호 방문하며, 일본사절도 한성까지 올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조선·일본의 역학관계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청이 멸망할 경우, 조선에 있어서 일본이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약 200년 후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일본에게 패하므로써 예측이 사실이 되었다.

이와 같이 성호 이익은 임진왜란후의 한일관계를 객관적, 현실적 안목으로 이해하고자 했으며 명분보다는 시세를 중시하였다 이는 일본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당시 조선사회의 고정관념과 '소중화'의식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일대전기가 되었다.

4. 衛正斥邪派의 일본관(19세기)

위정척사사상은 李恒老(1792-1868)에서 비롯되는데, 원래 정확인 유·주자학을 지키고 사학(邪學)인 서양·천주교의 배척을 주장하는 사상이다. '위정척사'를 주장하는 화서(華西)학파의 사상은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에 조선이 외국의 도전을 받게 되자 백성들로부터 호응을 받으면서부터 나타났다.

청국을 정치적으로 조선의 종주국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이적(夷狄)시 하였다. 19세기에 들어와서 서양종교의 침투와 서양의 군사적 압력이 심해지자, 종래에 청에 대해 사용하던 이적이라는 말을 서양에 대해 사용하게 되었다. 즉 서양은 화색(貨色)에 빠져서 인륜을 무시하는 금수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더럽혀지지 않은 조선을 지키기 위하여 서양을 격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써, 구체적으로는 천주교의 침투와 서양의 개국요구에 대한 저항이었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이데올로기의 면에서 지지한 것이 바로 이 사상이며, 조선후기의 '소중화'사상이 조선 말기에 형태를 바꾸어 나타난 것으로, 근대에 들어 와서 서양은 '양이', 일본은 '왜이'라고 하여, 쇄국양이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서세동점(西勢東漸)에 따른 외압으로부터 전통의 보전이란 문제를 갖고 주자학적인 입장에서 중화의 전통문화가 서구문화와 공존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위정척사파는 일체의 변혁을 거부하였으며, 주자학적 가치에 어긋나는 일본의 풍속과 문화를 야만시 하였다. 그들의 근대문명에 대한 부정은 일본에 대한 부정이기도 했다. 그들은 명치유신 후, 서양의 선진문화의 수용에 진력하는 일본도 양이(洋夷)와 동일한 것 즉 '왜양일체'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이상 조선시대의 대일 인식을 알기 위하여, 크게 시대별로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기본적으로 조선조의 대외 인식의 흐름 안에서 대일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5세기 신숙주의 긍정적인 일본인식, 16·7세기 임란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일본관, 18세기 실학자의 객관적 일본관, 19세기 위정척사파의 국수적 대일 인식을 알 수 있었다.

조선후기의 선각적 지식인, 실학자들은 객관적으로 일본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기술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지만 그 대부분은 재야의 지식인들이었다. 그리고 정약용 등, 일부 정치에 참여한 실학자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서양종교를 수용하였다는 이유로 정치세력에서 배제되었다.

결론적으로 조선조 일본인식에는 전통적 화이관에 입각한 문화 우월의식이 전반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즉, 일본과는 같은 유교문화권의 일원으로서 의례적인 사절을 교환했으나 일본을 조선과 같은列에 두지 않았다. 중국을 '중화', 조선을 '소화'라 생각하고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는 야만적인 오랑캐로 간주하였다.

IV. 근대의 일본관

제1차 수신사행 관련 기록을 분석하여 조선의 근대

일본인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1차 수신사행의 파견일정, 일본시찰 또는 견학의 내용 등에 관해서는 이미 제헌학의 연구가 있으므로, 본장에서는 제1차 수신사행에 정사로써 참가했던 김기수의 일본관찰을 중심으로, 근대 최초의 조선 사절이 명치일본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19세기 후반 일본의 사회·풍속 면에서의 근대화 즉 서양화를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를 고찰하려고 한다.

1. 파견의 경위

제1차 수신사파견에 이르는 한일 양국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일본은 1868년 明治정부를 성립하고, 외교관례로 대마도의 宗義達을 통해서 조선에 통고하였다. 그러나 그 외교문서 중에 종래에 쓰지 않았던 황(皇)·칙(勅) 등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선 측은 이를 접수하지 않았다. 조선은 지금까지 일본과 전통적으로 대등한 예를 지켜왔는데 중국의 천자만이 쓸 수 있는 문자를 일본이 사용하므로써 일본이 자국을 상위에 두는 불손한 표현이라고 해석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 이후 약 7년 간 한일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문제로 인해 일본정부에서는 정한론(征韓論)이 재등장하고, 내정충실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파에 의해 정한파인 사이고 다카무리(西郷隆盛) 등이 하야하는 정변이 1873년에 발생한다. 그 후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정권은 조선근해의 불법측량을 반복하여 강화도 사건을 도발하고 결국 조선을 개국시켜,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한일관계는 일단 재개되었다.

1876년 2월 강화도조약을 맺기 위해 일본에서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등의 일행이 조선에 왔다. 그때 금후 조선 측에서도 일본을 방문해 달라는 일본 측의 권유가 있었다. 제1차 수신사 파견은 강화도조약의 잔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실무자들이 서로 만나고, 조약을 위해 조선에 온 일본파견단에 대한 회답사의 형식으로 파견되었다.

하지만 수신사파견에 있어서 한일 양국의 의도는 서로 달랐다. 즉 일본 측에서는 근대적으로 변모하는 일본의 모습을 보여서 조선의 청국외존 체질을 바꾸게 하고 금후 조선에 있어서 일본의 영향력을 크게 하려는 것이었다. 한편 조선 측에서는 고종이 말하는, 일본물정을 소상히 정탐하는 임무가 수신사에게 부여되어 있었다. 제1차 수신사행에 있어서 정사 김기수(1832-?)는 파견 당시 관직은 정삼품의 예조참의로서 최고의 유교적 교양을 지닌 대표적 지식인이라 하겠다. 김기수는 근대 대일교섭의 첫

사절로서 사절단원 76인을 인솔하고 1876년 5월22일에 일본측이 제공한 黃龍丸을 타고 부산을 출발하였다. 일본의 시모노세키(下關)·고베(神戸)·요코하마(横浜)를 거쳐 5월29일 도쿄(東京)의 신바시(新橋)역에 도착하였다. 간다(神田)의 舊今川 저택에 숙소를 정하고, 20일간 도쿄(東京)에 체재하면서 개화한 일본의 문물, 즉 전신과 철도의 가설, 군함과 대포의 제조를 비롯하여 군사·기계·학술·교육 등 시설을 관람하였다. 그의 일본 전문기는 『日東記遊』·『修信使日記』에 잘 나타나 있다.

2. 金綺秀의 일본인식

개국 후 최초의 조선 사절이 본 메이지(明治) 일본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 제1차 수신사의 파견일정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일본으로 가기 전 김기수의 일본관을 볼 수 있는 자료는, 『日東記遊』에 실려 있다. 일본의 '단발 문신'은 직접 본 적이 없고 거친 파도를 건너 본 적도 없는데, 며칠 후 단발과 문신의 야만스런 풍습을 직접 보아야 하고, 바다를 건너서 오랑캐의 나라에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관직에 몸을 둔 사대부로서 군주를 위해 자기 몸을 잊고 국가에 헌신할 것을 각오하고 일본으로 떠났다.

수행원의 구성은 통역·화원·서기·군관 등 모두 76명의 대대적인 이동이었다. 도쿄(東京)의 신바시(新橋)역에 도착하였을 때 수신사일행의 모습을 일본의 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수신사에 동행한 조선악대의 모습을 위와 같이 전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김기수에 대한 인상을 적고 있다. 이처럼 제1차 수신사일행은 조선의 가마를 타고, 전통의복차림으로 東京에 도착하였다. 일본 기자는 김기수 나이를 50세 정도이며 얼굴색은 조금 검고 반백의 머리카락 그리고 비만하며 지혜있게 보인다고 하고 기술하고 한 가지 기이한 일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신사일행 중 상관들은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일본 기자는 상관 모두가 근시인지 약시인지 아니면 조선에서 안경착용이 한창 유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하게 보고 있으며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조선 사회에서 젊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안경을 낄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번 수신사행에 있어 '수신'의 의미를 김기수는 '商略'의 條에, 수신이란 오래 전부터 수호에 신의를 더욱 두텁게 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과거의 수호관계의 연장이라는 조선 측의 인식과는 달리 일본은 이미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幕府)가 쓰러지고 왕정복고에 의한 새 정부가 들어서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와 다른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었다.

일본에 가기 전, 해외여행을 가는 김기수를 걱정해서 많은 지인들이 김기수를 방문하였는데, 그 중에는 일본을 서양의 앞잡이로 보고 김기수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한 자도 있었다.

'停泊'의 條에 김기수는 배안에서의 서양인 승선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조선국에서 배가 출발할 때, 선상에 서양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란 김기수는 일본인 호송관에게 서양 사람의 하선을 요청하였다. 즉, 이 배는 비록 일본선이긴 하지만 수신사일행의 전송



[그림 1] 조선사절 일본에 오다

(The Illustrated London News) 鄭應洙 (1991) p.112

을 위한 배임으로 서양 사람과 함께 탈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양 사람은 이 배의 기관사로서, 일본은 아직 배의 운전 기술이 서양보다 못하므로 수신사일행의 안전을 위해 외무성에서 이 서양인에게 배의 운전을 맡겼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 김기수의 강력한 요구로 선장은 외무성과 상담하여 그 서양인 기관사를 배에서 내리게 되었다.

‘留館’의 條에서 사진기에 관해서도 김기수는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숙소의 직원이 와서 사진을 찍자고 하기에 여러 차례 거절하였다. 그 ‘사진장치’라는 것을 보면 마치 조선 닭장의 ‘화’와 같이 생겼다고 기술하고 있다. 사진기를 처음 접한 김기수는 사진을 찍으면 ‘흔’이 나가 버린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근세 조선통신사행에 흔히 보이던, 현지주민들의 서화요청이 제1차 수신사행에서도 있었다. 위의 기록에 의하면 일본 체재 중 휴식시간에 사대부들이 조선사절에게 휘호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김기수는 기분이 내킬 때만 그 요청에 응했다고 적고 있다. 과거 조선통신사들의 오만함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연회에 참석했던 일본인들도 각각 시를 지어 조선사절의 숙소로 보냈는데 그 중에는 우의적(寓意的)인 것이 많았다고 한다. 김기수는 일본인 가운데도 이렇게 안목을 가진 자들이 있어 자신을 따르려고 한다고 하며, ‘선왕의 법언’ 즉 유교에 근거한 바른 말씀을 아는 사람이 일본에도 있다고 감탄한다. 또 숙소에 머무른 지 며칠이 지났는데 관리나 간사들만 공적인 일로 출입하고, 일본유생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아 교류를 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 같은 대목에서 이번 수신사행이 근대적 한일교섭을 위해 일본에 온 최초의 사절임에도 불구하고, 김기수가 과거 도쿠가와(徳川)시대의 조선통신사행을 연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김기수의 대일 우월의식을 엿볼 수 있으며 김기수의 이러한 대일우월의식은 조선시대 이래의 대외인식 즉 화이관에 바탕을 둔 문화적 우월의식이라 하겠다.

‘行禮’의 條에서 일본인의 양복착용의 습관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즉 일본에서는 얼마 전 서양식의 의복과 모자를 공식적인 제복(制服)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그 복장은 너무 몸에 끼여 조금도 여유가 없으며, 앉았다가 설 때 엉덩이와 대퇴부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였다. 이처럼 신체의 곡선을 드러내는 것은 유교적 예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日東記遊』 卷二의 ‘玩賞’의 條에, 배가 고베(神戸)에 도착했을 때 본 서양인의 인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요코하마(横浜)와 고베(神戸)는 일본 개국 후

가장 큰 항구도시로 발전하고 있었다. 김기수는 일본 간사이(關西)지방의 가장 큰 항구도시 고베(神戸)에서 각국의 외국인들을 보았다. 그는 유럽제국인·러시아인·미국인 등 서양인의 얼굴은 굴곡이 심하고 머리카락이 황색 즉 금발이며, 서양인의 복장은 서로 유사해서 특히 유럽인과 러시아인은 판별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서양을 처음 접하는 김기수의 눈에 서양은 모두 하나처럼 보였다.

또한 서양여성에 대해서는 미성년여자의 늘어뜨린 긴 머리를 보고 한 몽치의 황색 머리칼이 개의 꼬리 같다고 하고, 여성의 스커트는 3, 4장의 천이 위로 갈수록 단이 중복되는 데 정말 이상하다고 하였다. 또 여성들이 망사로 된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이는 멀리서 날아오는 먼지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 하는데 볼수록 기괴하다고 적고 있다.

또 서양인의 눈에 정기가 없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서양인의 벽안은 동양인의 검은 눈동자에 비해 색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서양인은 자연을 정복할 정도로 재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정기가 없으니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 ‘玩賞’의 條에, 메이지(明治)천황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 기록은 조선사절이 도쿄(東京) 赤坂宮의 메이지(明治)를 방문하였을 때의 일을 적은 것이다. 이에 의하면 메이지(明治)의 위엄이 생각보다 크지 않으며, 이곳은 메이지(明治)천황이 집무하는 곳으로, 주거는 따로 있어 마차로 통근한다는 것과, 여기에 근무하는 근위병들의 숫자가 백여 명도 안 된다는 것, 그들의 복장은 홍색의 전(氈)을 소재로 한 서양식 상의와 바지이며 가장 자리를 금색선으로 장식하였는데 이러한 복장은 신체의 균형을 잡아 주고 또 편리하다고 적고 있다. 마지막으로 근위병의 기강이 확립되어 있다고 하였다.

외무성 관리이며 금번 제1차 수신사의 접대담당관인 미야모도 고이찌(宮本小一)와의 대화에서 서양모방을 좋아하는 일본인의 습성을 논하고 있다. 즉 ‘問答’의 條에 외무성 대승, 미야모도 고이찌(宮本小一)가 말하기를 최근 일본의 의복과 왕실의 제도를 전부 서양식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일본인의 심리가 원래 좀 경박해서 새로운 것을 보면 반드시 갖고 싶어 하기 때문이며 국민이 원해서 이렇게 서양식을 따랐다고 하였다. 하지만 전쟁 시 배를 탈 때 서양식의 의복이 편리하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는 이처럼 ‘편리함’때문에 서양식을 도입하였다는 말을 듣고 반대로 김기수는 조선시대 오백년간 의복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자랑한다. 그런데 자랑의 내용은 즉 ‘명나라의 皇帝’가 정한 이래, 조선은 ‘명의 제도’만 따랐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명’을 기준으로 조선 의복제도의 불변을 자랑하고 하고 있

다는 점이다. 그리고 김기수는 조선의 의복제도에 상하귀천의 규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계속해서 그는 '問答'의 條에서 조선의 주자학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김기수는 조선의 '朱子學—尊主義'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조선에서는 학문적으로 조선시대 오백년간 유일하게 주자학만을 숭상하여 왔다. 주자학에 반대하는 자는 '난적(亂賊)'으로 처벌하였으며, 과거 시에 불교나 도가의 표현을 쓰는 자는 유배되었다. 그래서 상하귀천에 관계없이 군주는 군주로써, 신하는 신하로써, 아내는 아내로써, 공자와 맹자의 도리만을 준수하여 왔다. 그 외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술수에 헛갈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그는 조선에서 일편단심 주자학의 도리만을 숭상하여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중화사상의 착실한 추종자로서 유교이외의 학문은 모두 이단시하고 있는 것을 엿보게 한다.

'俗尙'의 條에 일본천황과 재상들의 출퇴근 시의 모습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즉 교통수단은 클 경우 마차, 작을 경우 인력거이며, 그 때 종자는 한사람정도 밖에 없다. 집이 가까운 사람은 걸어서 다니며, 결코 이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文事'의 條에는 일본 룩군성 정조국 시찰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 정조국의 기계 설비를 보고 김기수는 매우 감탄하였다. "火輪하 나로 만사가 해결되니, 이 얼마나 훌륭한 기술인가"하고 감탄하면서도 "이에 대해서 공자가 말 한 적이 없으므로 나는 이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즉 주자학의 가르침에 없는 것이기에 보기를 주저하였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기기음교'도 '이용'해서 '후생'이 된다면 이를 배워야 할 것이라 하고 있다. 이처럼 서양의 기술을 '기기음교'라 표현하고 있는 점은 그의 화이관적인 사고를 엿보게 한다.

제1차 수신사일행은 조선인으로서 처음으로 메이지(明治)천황을 만났다. 메이지(明治)천황을 보고 김기수는 '付行中見聞別單'의 條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즉 메이지(明治)천황에 대해 나이는 25세, 보통 키에 보통 체구, 얼굴색은 조금 노란 편이며, 눈에 정기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몸소 정무에 힘쓰고 근면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제도는 빨리 폐하여 새롭게 한다. 복장은 다리에 밀착하는 바지와 '반신'의 상의를 착용하였는데, 이처럼 비록 서양의 제도라 하더라도 편리만 하면 즐겨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김기수의 표현대로 이 '편리함'이라는 단어는 실용적인 면을 중시하는 일본의 국민성과 근대일본의 서양 풍속 수용태도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김기수의 기록을 중심으로 19세기후반 조선 지식인의 일본풍속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김기수는 과학문명에 대한 물이해로 인하여 일본에서의 견학·시찰의 태도가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의 기록에는 화이관적 사고가 자주 등장하며, '중화사상'을 추종해 온 김기수는, 일본은 '양이(洋夷)'의 풍습에 물들었다고 하는 조선의 여론과는 달리, 일본의 변화에 관심을 표명하였고 일본의 공업발전에 감탄하면서도 일본시찰에서 본 서양의 기술에 관해서는 주자학의 가르침에 없는 '奇技淫巧'라 하여 보기를 꺼려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 실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특히 병사들의 훈련, 무기 등의 군사적인 면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하였다. 복식에 있어서는 서양복을 모방한 일본식 관복에 대하여 신체의 윤곽을 드러내는 의복이 예에는 어긋나지만 몸에 맞아 신체를 오히려 편리하게 해 주고 있다고 양복에 관한 당위성도 논하고 있다.

조선후기 조선인의 일본인식은 임란 후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바탕으로 대일우월감과 멸시감을 합리화시켜주는 화이관적 문화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19세기 위정척사사상은 서양의 문화체계를 '사(邪)'로 규정하고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반면 동양의 문화체계는 '正'으로 규정하여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1870년 전후 조선에서는 메이지(明治)유신 후 서양문화를 수용하여 근대화에 힘쓰는 일본에 대해서도 오랑캐로 간주하였다. 물론 위정척사사상을 민족주의사상인지 화이주의인지는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이상의 결론도 달라지겠지만, 그것에 관해서는 금후의 과제로 하고자 한다.

주제어 : 서양문명 개화, 수신사, 주자학, 실학파, 화이관

참 고 문 헌

- 姜大德 (1996). 開港前後 華西學派의 對外認識. 韓日關係史 研究 제5집, 玄音社.
- 國史編纂委員會 (1958). 修信使記錄(日東記游·修信使日記·使和記略)
- 金允植 (1974). 韓國人の 日本觀. 日本學報, 제2호. 韓國日本學會.
- 김기수 (1958). 김기수의 일동기유 수신사 일기. 탐구당.
- 朴鐘鳴 譯 (1987). 看羊錄. 平凡社東洋文庫.

- 三宅英利 (1993). 朝鮮王朝後期官民の日本觀.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Ⅴ自意識と相互理解, 東京大出版會.
- 孫承詰 (1987). 相互認識 및 對外政策의 思想的 特質. 近世韓日關係史. 강원대출판부.
- 신숙주 (1471). 海東제국기.
- 이수광 (1614). 芝峯類說.
- 이익 (1740). 星湖僿說.
- 田保橋潔 (1972) 丙子修信使の差送. 近代日鮮關係の研究. 上卷, 宗高書房.
- 鄭應洙 (1991). 근대문명과의 첫 만남. 韓國學報, 제63집. 一志社.
- 趙恒來 (1994). 丙子(1876)修信使行과 對日認識 -日東記遊의 검토와 關係해서-. 韓日關係史 河宇鳳의. 玄音社.
- 河宇鳳 (1989). 朝鮮後期實學者의 日本觀研究. 一志社.

(2005. 06. 18 접수; 2005. 09. 15 채택)